



두 번의 동점골-연장-승부차기-VAR... 역대급 명승부

<비디오 판독>

3-3 무승부 승부차기 3-2 승리... 숨막혔던 3시간 혈투 4강 진출 또 다른 주역 'VAR 판정'이 뒤흔든 세네갈전

“이 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기는 없었다.”

한국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세네갈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3시간여 혈투 끝에 승리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U-20 월드컵 8강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이강인(발렌시아)의 활약 속에 3-3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한국은 2-2로 맞선 승부차기에서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선 오세훈(아산무궁화)이 상대 골키퍼 파올로 재차 찬 끝에 골망을 흔든 반면,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의 공이 공중으로 뜨면서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확정했다.

한국은 오는 12일 새벽 3시30분 루블린에서 미국을 2-1로 꺾은 에콰도르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툰다. 한국은 에콰도르를 꺾을 시 사상 첫 FIFA 주관 남자 대회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다.

한국은 최전방에 2경기 연속 헤더골을 넣은 오세훈을 필두로 전세진(수원)과 이강인을 좌우 측면에 배치한 공격 삼각편대로 3-4-3 포메이션을 짜 세네갈을 골문을 노렸다. 이에 세네갈 4-4-2로 맞섰다.

세네갈은 피지컬과 속도를 앞세워 한국을 괴롭혔다. 한국은 경기내내 세네갈에 고전했고 결국 전반 37분 혼전 상황에서 카병 디아우에게 슈팅을 허용하며 실점했다. 하지만 한국은 행운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정호진(고려대)

이 슈팅할 때 이지솔(대전)이 상대 선수에게 등을 떠밀려 넘어진 게 확인되면서 VAR을 거쳐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막내 이강인은 침착하게 왼쪽 구석을 꿰뚫었다. 골키퍼 디알리 은 디아에가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던졌지만 공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31분 이재익(강원)이 위험지역에서 유수프 바지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허용했다.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마지막 찬스 이강인의 왼발이 빛을 발했다. 후반 추가시간 8분 코너킥을 얻은 한국은 키커 이강인이 정교하게 킥을 찼고, 문전으로 쇄도하던 중앙수비수 이지솔이 끊어먹는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지솔은 페널티킥 유도에 이어 동점골까지 넣어 벼랑끝에서 한국을 구해냈다. 이강인은 페널티킥 끝에 이어 동점골까지 어시스트 했다. 세네갈은 경기 종료 직전 주전 공격수를 두명을 교체시킨 탓에 연장 초반 한국에 주도권을 내줬다. 이강인의 왼발은 다시 한번 빛났다.

이강인은 연장 전반 6분 역습 상황에서 틈을 놓치지 않고 수비수 사이를 통과하는 절묘한 스루패스를 찔러줬다. '슈팅몬스터' 조영욱이 이를 놓치지 않고 문전으로 쇄도하며 대표알 같은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지막 1분이 아쉬웠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 1분 아마두 시스가 극적 동점골을 터뜨렸고,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한국은 1번 키커로 나선 광주 김호준(리퍼링)과 조영욱이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 연장 전반 조영욱(오른쪽)이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오세훈과 함께 그라운드를 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따라 실축하며 2-0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3번 키커 엄원상(광주), 최준(연세대)이 이따라 골망을 흔들고 상대 키커들의 실축 속에 2-2 상황에서 오세훈

이 마지막 키커로 나섰다. 오세훈이 오른 발로 강하게 찬 공이 상대 골키퍼에 얹혀 막혔지만 주심은 골키퍼가 슈팅 전에 골라인을 벗어났다 판단했다. 심판은 VAR판

독결과 키커가 먼저 움직였으며 오세훈에게 재차 슈팅을 선언했다. 안도한 오세훈은 골키퍼 정면으로 차 넣으며 3-2로 뒤집었다.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 은디아예의 슈팅이 허무하게 크로스바 위로 뜨면서 한국의 36년 만에 4강 진출이 확정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국, 12일 새벽 3시 30분 에콰도르와 준결승

폴란드월드컵 개막직전 평가전서 이강인 앞세워 한차례 승리 U-20 대표팀 전적 1승1패... 곤살로 플라타 경계 대상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순항 중인 20세 이하(U-20) 태극전사들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상대는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다.

U-20 대회 4번째 출전인 에콰도르는 토너먼트에서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물풍의 팀'으로 자리 잡았다. 에콰도르는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로 이탈리아와 일본에 밀려 B조 3위(승점 4)에 그쳤다.

골 득실을 따진 끝에 가까스로 16강에 합류한 에콰도르는 토너먼트부터 달라진 경기력으로 잇달아 이변을 연출했다. 에콰도르의 16강 상대는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가뿐히 통과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였다. 대부분이 우루과이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지만, 에콰도르는 이를 보란 듯이 뒤엎고 3-1로 승리를 따냈다.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골하지 않고 내리 3골을 몰아넣으며 8강에 합류했다. 8강에서도 에콰도르는 난적 미

국에 2-1 승리를 거뒀다. 1-1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존 에스피노사의 골이 비디오판독(VAR) 끝에 인정돼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에콰도르는 그동안 U-20 월드컵과 별로 인연이 없었다. 강팀들이 즐비한 남미 지역 예선에서 번번이 탈락해 본선 무대를 거의 밟지 못했다. 최고 성적 역시 16강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강호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요주의 선수는 레오나르도 캄파나다. 에콰도르 리그의 바르셀로나SC 소속인 캄파

나는 지난 3월 골닷컴이 선정한 세계 축구 유망주 50인에 이강인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신성'이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골을 없지만 4강에서 에스피노사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강호 우루과이와 멕시코를 상대로 연이어 골을 뽑아낸 곤살로 플라타도 경계대상이자. 한국 U-20 대표팀은 과거 에콰도르와 2번 맞붙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전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월드컵 개

막 직전에 치렀던 평가전에서는 한국이 이강인의 골을 앞세워 에콰도르를 1-0으로 꺾었다.

한국의 역대 U-20 월드컵 최고 성적은 4강이다. 따라서 이번 4강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은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첫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4강전은 12일 오전 3시 30분에 루블린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19. 7. 2(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시: 2019. 6. 25(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도로 접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접 330㎡ 은행4억 포함 승계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델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